

# 乙丑 新年交禮會 開催

치협은 지난 5일 오전 10시 치협회관에서 5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金吉洙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교례회 석상에서 李永玉 치협회장은 「전국회원이 총화단결하여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신뢰받는 치과의사상 확립과 선도적인 봉사정신으로 복지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하자」는 요지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尹大榮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간략한 카테일로 화기애애하게 마쳤다.



〈사진은 신년교례회 장면〉

## 完璧한 基礎資料蒐集으로 齒協百年大計 設定

### 李永玉齒協會長 전문지 기자회견

- 정책단체로서의 협회를 이끌기 위한, 해당분야에 대한 자료수집완료 분석중.
- 분석된 자료로 관계당국과 예의 협의하여 권익옹호에 총력을 경주하며 실천해 나갈 방침.
- 부정의료행위자 척결, 기자재수급 및 유통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설문및 통계자료 활용.
- 회관이전은 치협발전에 미래상을 충분히 고려.
- 의료보험조합설립 문제는 단독설립은 어려우므로 기존 의료보험조합을 이용하는 방안 모색.
- 분과학회육성방안 다각적으로 검토.
- 종합학술대회 각 분과학회이관문제 충분히 검토해볼 문제로서 올 정기 총회시에 상정할 예정.
- 보험수가 인상문제 관계요로와 협의중에 있으며 진료시간의 특수성을 고려 구강외과와 소아치과에 비중을 두었음.
- 정관개정문제는 골격을 추려서 개정심의위를 구성 총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

이상과 같이 주요 골자를 밝힌 기자회견 석상에는 李鍾守 부회장, 邊碩斗 부회장, 金吉洙 총무이사가 배석했으며 李章勳 공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바 있다.